

## 조선후기(朝鮮後期) 한글 방각본(坊刻本) 『수호전(水滸傳)』의 성격

유춘동(강원대 국문과 교수)

[1] 한국의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수호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식(李植 1584-1647)이 『홍길동전』의 연원(淵源)을 언급하면서 『수호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김태준부터 시작되었다.<sup>1)</sup> 이러한 이유로 최근까지 한국에서의 『수호전』 연구는 『홍길동전』을 『수호전』과 비교하는 연구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주요 도서관에는 『수호전』의 중국 판본, 중국 원전을 읽기 위해 제작된 『수호전의 어록해(語錄解)], 그리고 중국본을 한글로 번역한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수호전』 번역본은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번역본부터 시작해서 일제 식민지시기에 등장한 번역본이 있고, 형태적으로는 필사본, 세책본, 방각본, 활판본 등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들 번역본은 100회본을 번역한 것, 120회본을 번역한 것, 70회본을 번역한 것으로 나뉜다.

주목할 것은 이본의 대부분이 상업출판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호전』 번역본의 연구는 단순히 수용이나 번역의 양상의 문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상업출판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서 연구해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이 글에서 다룰 것은 방각본(坊刻本) 『수호전』이다. 방각본은 조선시대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목판을 사용해서 찍어낸 인쇄본을 말한다. 방각본 『수호전』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시대 대중들에게 이 소설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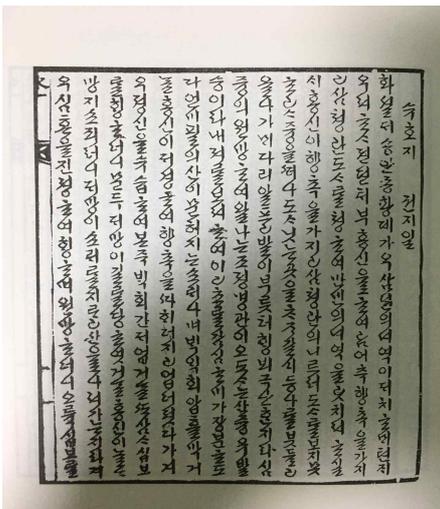


사진1. 방각본 수호전 <권1> 1장 전엽

[2] 방각본 『수호전』은 당시 수도였던 한양(漢陽)에서 찍어낸 경판본(京板本)이 있다. 경판본은 <2권2책본>과 <3권3책본> 두 종이 있다.<sup>2)</sup>

<3권3책본>은 <2권2책본>을 분권(分卷)해서 만든 것이다. <2“슈호지 권지일, 이”, 판심권2책본>의 각 권의 표제는 “슈호지 상, 하”, 권수제와 권차는 제는 “水一, 二”이다. 두 권 모두 반엽 15행으로 전체 장수는 31장이다. <권1>에 “경신미출”이라는 간기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적어도 1860년, 또는 그 이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판본을 대상으로 번역의 저본(底本), 번역의 양상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경판본 『수호전』의 번역의 저본/번역의 양상

① 경판본 번역의 저본: 경판본의 마지막 권은 ‘고구가 양산박을 토벌하기 위하여 관군(官

1)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 경판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춘동, 「방각본 <수호지(水滸誌)>의 판본과 성격에 대한 연구」, 『열상 고전연구』 32, 2010, 참조.

軍)을 출정'시키기 직전의 내용까지만 수록해 놓았다. 이 내용은 100회본, 120회본, 70회본 모두 53회에 해당된다. 그리고 번역의 양상 또한 중국본을 축자역(逐字譯)을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축약해 놓았고, 내용 면에서도 변개(變改)가 심하다. 따라서 경판본의 저본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100회본을 번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120회본에서 볼 수 있는 “송강이 조개를 잡으라는 제주부의 공문을 받은 후에 번민을 하다가 왕파를 만나 염파를 도와주고, 이후 염파석과 혼인한 후에, 유당을 만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설. 송강이 평심 지물물 앓기지 아니며 남의 혼상의 구비하기를 숭상하더니, 고을 스릅 념파의 지오비 죽오미 송강이 장수를 지니여 주거늘 념피 송강을 은인이라 하여 제 썰 파석으로 첩을 삼은 후, 파석이 장삼을 스통하여 송강의게 정이 바히 업스미, 송강이 그 스키를 식치고 종적을 쓴허 왕니치 아니터라. (…중략…)

유장이 칼 초고 전납 쓰고 산의 느려 화음현 압히 가 송강을 맞느 절헌디, (…중략…)

송강이 유장을 보니고 “을노 도라오더니 길의셔 념파를 맞느미 피왈, “요스히 압시 엇지 아니오느뇨? 금일 나와 한가지로 가즈.” 하며, 옷스미를 닛글거늘 송강이 념파의게 붓잡힌 비 되어 마지 못하여 파석의 집의 니르러 청상의 안즈미, 념피 파석을 불너 왈, “너희 스랑하는 삼 남이 왓스니 나오라.” (경판본, <권1> 18장 전엽~후엽)

제시한 예문을 통해서 경판본은 100회본을 번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판본은 120회본이나 70회본 둘 중의 하나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53회에서 끝나기 때문에 대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본 중에 어떤 본을 바탕으로 번역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중요한 점은 상업출판물인 세책본과 활판본의 저본이 120회본이란 점이다. 경판본 『수호전』 또한 다른 상업출판물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120회본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판본의 성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경판본은 기본적으로 축약본이지만 원본의 내용에 거의 근접하게 서술된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무송과 관련된 이야기, 이규와 관련된 이야기, 석수와 양웅의 이야기이다. 먼저 무송과 관련된 이야기는 중국본의 21회에서 26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무송이 송강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무송이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는 장면, 무송이 이로 인해 관직을 제수받고 그의 형 무대를 만나는 장면, 반금련과 서문경이 음행을 저지르는 장면, 두 사람이 무대를 독살하는 장면, 무송이 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경판본에서는 이 부분에서 원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축약하여 제시했다.

이규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데, 특히 중국본 41회에서 42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세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이규가 노모를 모시기 위하여 양산박을 잠시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가짜 이규를 만나는 장면, 노모가 호환(虎患)을 입고 죽는 장면, 노모의 복수를 위해 호랑이를 죽이는 장면, 이러한 공으로 관직에 올랐다가 고초를 겪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석수가 양웅과 합세하여 반교운을 죽이고 양산박에 합류하는 장면 또한 원본을 충실하게 기술했다. 이 내용은 중국본 43회부터 45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석수가 양웅의 집에 기거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양웅의 처인 반교운이 승려 배여해를 만나 음행을 저지르는 장면, 석수가 이를 알고 양웅의 명예를 위하여 배여해를 죽이고 양웅 또한 이 사실을 안 뒤에 자신의 부인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양산박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경판본에서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판본은 이처럼 『수호전』 내용에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간행했다. 이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이전에 간행되었던 상업출판물이나 다른 필사본과의 차별화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본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상업출판물이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버리면서 독자적인 이본을 만들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에서 고안해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판본은 120회본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② **경판본 번역의 양상과 특징:** 경판본 『수호전』은 120회 내용 중에서 대략 53회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원본의 매회를 경판본에서는 대략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축약해 놓았다.<sup>3)</sup> 그리고 120회본에서 보이는 시, 사, 평어, 삽입시, 편지, 상소문 등은 모두 생략했다. 아울러 120회본에 등장하는 108명의 인물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일부만 등장시켰다. 이때 인명은 대부분 원본과 일치하지만 비중이 다소 약한 인물들은 번역 과정에서 임의로 이름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 예를 보기로 한다.

第一回 張天師祈禳瘟疫 洪太尉誤走妖魔

話說 大宋仁宗天子在位，嘉祐三年三月三日五更三點，天子駕坐紫宸殿，受百官朝賀。(…中略…) 當有殿頭官喝道，“有事出班早奏，無事卷簾退朝。”只見班部叢中，宰相趙哲，參政文彥博，出班奏曰，“目今京師瘟疫盛行，民不聊生，傷損軍民多矣。伏望陛下釋罪寬恩，省刑薄稅，以禳天災，救濟萬民。”天子聽奏，急敕翰林院隨即草詔，一面降赦天下罪囚，應有民間稅賦，悉皆赦免，一面命在京宮觀寺院，修設好事禳災。不料其年瘟疫轉盛。仁宗天子聞知，龍體不安，復會百官計議。向那班部中，有一大臣，越班啟奏。天子看時，乃是參知政事範仲淹，拜罷起居，奏曰，“目今天災盛行，軍民塗炭，日夕不能聊生。以臣愚意，要禳此災，可宣嗣漢天師星夜臨朝，就京師禁院，修設三千六百分羅天大醮，奏聞上帝，可以禳保民間瘟疫。”仁宗天子準奏。急令翰林學士草詔一道，天子禦筆親書，並降禦香一炷，欽差內外提點殿前太尉洪信為天使，前往江西信州龍虎山，宣請嗣漢天師張真人，星夜臨朝，祈禳瘟疫。就金殿上焚起禦香，親將丹詔付與洪太尉為使，即便登程前去。(…後略…) (120회본, 제1회)

수호지 권지일. 화설. 디송 인종황제 가우 삼년의 녀역이 디치흠미 텃지 우려흐스 전던티부 흥신으로 흐여곰 어측향축을 가지고 삼청관도서를 청흐여 만민의 녀역을 곳치려 흐실시(…중략…) (경판본 <권1>, 1장 전엽)

제시한 예문은 120회본과 경판본 1회이다. 위의 예시에서는 생략했지만 120회본에서는 먼저 인언(引言)과 개장시, 삽입시가 제시된 후에 1회가 시작된다. 경판본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경판본의 내용은 중국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을 축약하여 번역했다.

제시된 예문을 통하여 경판본에서 인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다. 흥신의 경우, 120회본과 경판본이 일치하는 반면, 나한천서 장진인은 ‘삼청관 도사’로만 기재해 두었다. 1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흥신으로 북마전(伏魔展)을 열어서 108명의 요괴를 세상에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장진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인물이다. 경판본에서는 이러한 점을

3) 유춘동, 앞의 논문, 296~300쪽 참조.

고려하여 장진인의 이름을 모호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중이 약한 인물들의 이름을 중국본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는 경판본에서 흔히 보인다.

③ **번역본의 전반적인 성격:** 방각본 『수호지』는 중국본 『충의수호지』를 저본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본의 대조를 통하여 방각본 『수호지』의 전반적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각본 『수호지』를 중국본 『충의수호지』와 대조해보면, 방각본 『수호지』는 원본의 120회 내용 중에서 대략 53회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원본의 매 회를 방각본에서는 대략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축약해 놓았다. 그리고 『충의수호지』에 있던 시(詩), 사(詞), 평어(評語), 삽입시(插入詩), 편지, 상소문 등은 모두 생략했다. 아울러 『충의수호지』에 등장하는 108명의 인물들이 모두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일부만 등장시켰다. 이때 인명은 대부분 원본과 일치하지만, 비중이 다소 약한 인물들은 번역 과정에서 임의로 이름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 예를 보기로 한다.

[1] 第一回 張天師祈禳瘟疫 洪太尉誤走妖魔

話說。大宋仁宗天子在位，嘉祐三年三月三日五更三點，天子駕坐紫宸殿，受百官朝賀。(…中略…)，當有殿頭官喝道，“有事出班早奏，無事捲簾退朝。”只見班部叢中，宰相趙哲，參政文彥博出班奏曰，“目今京師瘟疫盛行，傷損軍民甚多。伏望陛下釋罪寬恩，省刑薄稅，祈禳天災，救濟萬民。”天子聽奏，急敕翰林院隨即草詔，一面降赦天下罪囚，應有民間稅賦，悉皆赦免，一面命在京宮觀寺院，修設好事禳災。不料其年瘟疫轉盛，仁宗天子聞知，龍體不安，復會百官計議。向那班部中，有一大臣，越班啓奏。天子看時，乃是參知政事范仲淹，拜罷起居，奏曰，“目今天災盛行，軍民塗炭，日夕不能聊生。以臣愚意，要禳此災，可宣嗣漢天師星夜臨朝，就京師禁院，修設三千六百分羅天大醮，奏聞上帝，可以禳保民間瘟疫。”仁宗天子准奏。急令翰林學士草詔一道，天子御筆親書，並降御香一炷，欽差內外提點殿前太尉洪信爲天使，前往江西信州龍虎山，宣請嗣漢天師張真人，星夜來朝，祈禳瘟疫。就金殿上焚起御香，親將丹詔付與洪太尉，即便登程前去。(…後略…)4)

[2] 슈호지 권지일. 화설. 디송 인종황제 가우 삼년의 녀역이 디치히미 텃지 우려흐스 전던티부 흥신으로 흐여곰 어측향축을 가지고 삼청관도사를 청히여 만민의 녀역을 곳치려 흐실식……(중략) <경판본, <권1> 1장 전엽(前葉)>.

제시한 예문은 중국본 『충의수호지』와 방각본 『수호지』의 1회 첫머리이다. 위의 예시에는 없지만 중국본에서는 먼저 인언(引言)과 개장시(開場詩), 삽입시(插入詩)가 제시된 후에 1회가 시작된다. 방각본 『수호지』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방각본 『수호지』의 내용은 중국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을 축약하여 번역하였다.

제시된 예문을 통하여 방각본에서 인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다. 흥신의 경우 중국본과 방각본이 일치하는 반면, 나한천사(嗣漢天師) 장진인(張真人)은 “삼청관 도사”로만 기재해 두었다. 1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흥신으로 북마전(伏魔殿)을 열어서 108명의 요괴를 세상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장진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인물이다. 방각본 『수

4) 李泉.張永鑫, 『水滸全傳校註』, 里仁書局, 1994, 1~2쪽.

호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진인의 이름을 모호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중이 약한 인물들의 이름을 중국본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는 방각본 『수호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방각본 『수호지』를 원본과 대조해 보면 변개(變改)된 곳이 많다. 아래에 제시한 방각본 『수호지』의 예문은 중국본의 20회에 해당한다.

[1] 송강이 디로하여 칼을 썩혀 파석을 지르고 내려와 즉시 집의 도라와 티공기 엮파석 죽인 스연을 고히고 아오 송청으로 더브러 뒤문으로 나 청주 식진의 집의 니르니, 식진이 보고 디회하더라.

엮피 누 아리서 즈다가 파석의 슝 죽인단 쇼리의 놀느 누의 올느 보니, 파석이 죽었고 송강이 엮거늘 펍 즉시 고히안디, 지현이 본디 송강의 착함물 아느 마지 못하여 쥬동 녀힘을 보너여 송강을 잡으라 하니, 쥬 녀 낭인이 티공을 보고 송강을 츠즌 디, 티공 왈, 내 으들이 본디 흥피히기로 닉친 후, 관가 공문을 맞타 두엇노라 하거늘 [2]낭인이 " 디로 고히니 지현이 도로혀 다함히 녀겨 녀파를 불너 이 말롤 닐으니, 장삼이 녀파를 공동하여 기봉부의 청하여 송강을 용모 파괴하여 잡으려 하더라.(경관본 <권1>, 19장 후엽(後葉)~ 20장 전엽(前葉))

중국본은 “송강이 엮파석을 죽이고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피신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엮파석의 모친과 장문신은 관가로 가서 송강을 살인자로 고발한다. 그러자 관가에서는 송강의 잡기 위해 관원들을 급파하지만, 송강과의 친분을 생각하여 체포하지 않는다. 이에 화가 난 장문신은 다시 상위의 관가로 찾아가 송강을 고발한다. 이 사실을 안 송강은 그때서야 시진의 집으로 도망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각본 『수호지』에서는 [1]과 같이 송강이 엮파석을 죽인 후에 바로 시진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리고 [2]는 원래 송강이 엮파석을 죽이자마자 일어난 일인 데 뒤에 일어난 사건처럼 처리해 두었다. 이외에도 원전과 대조해 볼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변개는 방각본 『수호지』의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5)</sup> 따라서 방각본 『수호지』는 중국본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축약하여 번역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변개한 본임을 알 수 있다.

#### (4). 번역의 양상: 원본에서 삭제가 된 부분

방각본 『수호지』는 중국본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축약하여 번역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변개한 본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원본의 내용을 크게 삭제한 경우가 있어서 주목된다. 이 경우의 공통점은 첫째, 서사전개를 늦추는 내용, 둘째, 살인과 같은 잔인한 장면, 셋째, 관군을 죽이는 내용이다.

첫 번째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중국본의 4회, 5회, 26회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중국본의 4회와 5회는 노지심이 문수원에서 쫓겨나 동경에 있는 상국사로 가던 도중에 겪는 일들이다. 이 과정에서 노지심은 도화산 산적들에게 곤경을 겪고 있던 유태공의 딸을 구하기 위하여 여장(女裝)을 하여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며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후, 와관사에 들러서 요승(妖僧)인 최도성과 구소을을 퇴치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4회와 5회는 『수호지』의 중요 등장인물인 노지심의 활약상이 제시된 일화로, 독자들의 흥미를 줄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6회에 임충과 만나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내용들은 도리어 서사전개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방각본 『수호지』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5)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9회의 내용을 기술한 <권1> 29장 후엽과 30장 전엽, 43회의 내용을 기술한 <권2> 14장 전엽~14장 후엽 부분이다.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고 『수호지』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용력(勇力) 과시 부분이나 무술대결, 전투 역시 모두 삭제하였다. 이 내용 또한 서사전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장면이다. 예를 들어 1회의 왕진과 사진이 무술대결을 통하여 마침내 사제지간의 예를 맺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방각본 『수호지』에서는 장황한 설명과 구체적인 묘사를 삭제하고, 왕진의 말 한마디로 사진이 그에게 사과하고 스승으로 모시는 장면으로 변개시켰다.<sup>6)</sup> 즉 과정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독자에게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경우의 예는 26회를 삭제한 것이다. 중국본의 26회는 장청이 주막을 경영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을 죽여서 인육 만두를 사람들에게 파는 내용이다. 살인도 문제지만 인육으로 만두를 만들어 파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방각본에서는 이 내용을 통째로 삭제했다. 그리고 25회에서 무송이 자신의 형을 독살한 간부(姦夫) 반금련과 서문경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과 양산박의 도적들이 사람을 거리낌 없이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도 삭제하거나 자세한 묘사를 피했다.

마지막의 예는 중국본의 19회, 30회, 35회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중국본의 19회는 양산박에 입성한 조개를 잡기 위하여 제주부에서 관군을 파견한 내용, 30회는 무송이 장도감과 장문신을 죽이는 과정에서 관군과 대치하며 관군들을 죽이는 내용, 35회는 송강을 잡기 위해 관군이 파견되는 장면이다. 방각본 『수호지』는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어서 기술하여, 양산박의 도적들이 관군과 싸움을 벌이는 대신에 민간인과 싸우는 장면으로, 또는 민간인을 죽이는 것으로 처리했다.

『수호지』에는 108명이나 되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여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살인이나 인육(人肉)을 먹는 잔인한 장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일부 장면은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번역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짧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요약하여 번역할 것인가는 번역본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방각본 업자는 이처럼 문제시 될 만한 것들을 과감히 삭제하여 이 책이 유통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논란<sup>7)</sup>을 최대한 피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 참고문헌

- 古本小説集成編輯委員會編, 『李卓吾批評忠義水滸傳』, 上海古籍出版社, 1992.  
 古本小説集成編輯委員會編, 『鐘伯敬評水滸傳』, 上海古籍出版社, 1992.  
 古本小説集成編輯委員會編, 『第五才子書水滸傳』, 上海古籍出版社, 1992.  
 施耐庵·羅貫中, 『容與堂本水滸傳』, 上海古籍出版社, 1988.  
 김동욱, 『영인 고소설 판각본 전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6.  
 유춘동·박재연, 『통의슈호전』, 선문대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7.  
 유춘동, 『조선시대 수호전의 수용 연구』, 보고서, 2014.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편, 『한국 고소설 관련 자료집 I』, 태학사, 2001.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편, 『한국 고소설 관련 자료집 II』, 이회, 2005.

6) 왕진이 “우허 보다가 디쇼흐니 쇼년이 디로호여 치고져 호거늘 왕진 왈, 그디 앓가온 지조로써 스승을 못 만났기로 한호노라. 쇼년이 청호여 상좌의 안치고 지빅호거늘(경판본 <권1> 3장 전엽~3장 후엽).

7) 『수호지』 관련 기록을 보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사회를 전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 내용은 무악고소설연구회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 태학사, 2001, 『수호지』 기사 참조.